

<효심 Hyo Shim Lyrics>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모두 가르쳐 주시고
천주적 제물 길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오로지 감사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코

아버지시여 이제 제가 있사오니
아무 걱정 마시고 안심하옵소서
우리들 모두 부모님을 위로 해드리는
참다운 효자가 되게 하옵소

We don't know anything about God and Jesus;
Teach us everything we need to do,
And let us go on the way to heaven's offering.
(천주에 바쳐주소서, 천주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Even if I'm going to cross the cross (with only gratitude),
Even if it's hard and exhausting, let us go with gratitude.

Father, now that I'm here,
don't worry and be relieved.
Let us all be true filial children
who comfort our parents.

神様 イエス様 知らない私たちに
任された責任を 知らせてくださり
天宙に供えてください

十字架を担っても(すべて感謝)
どんなに困難でも感謝

お父様 私がおりますので
心配などしないでください
私たち ご父母様を慰労する
孝子とならせてください